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pISSN 1229-781X / eISSN 2671-5759
기독교교육논총 제72집 (2022. 12. 30): 367-392
https://doi.or.kr/10.17968/jcek.2022..72.017

A Study on Christian Ecological Spirituality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

최은택(Euntaek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resent directions and a model of Christian ecological spirituality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and to expand Christian education beyond the private to the public.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oday's modern societ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has changed daily life and standards over the past few years As a result, the post-corona discourse is becoming more active.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what educational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in terms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ost-corona era. Especially, one of the urgent problems that modern society needs to solve today is the problem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I tried to prepare an alternative in perspective of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To this end, the causes of today's ecological environmental problems were examined in three perspectives: global, social, and personal. It could be summarized as the problem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thropocentrism, and ecological ignorance, respectively. To solve this,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spirituality education was presented as the spirituality of participatory responsibility, the spirituality of ecocentrism, and the spirituality of ecological conversion. The specific model of Christian ecological spirituality education was established by presenting educational purposes and goals,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valuation.

Key Wor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VID-19, Post-corona, Christian ecological spirituality, Project based learning

Received November 26,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29, 2022
Author : Euntaek Choi, Professor, Yonsei University, etchoi0330@gmail.com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

A Study on Christian Ecological Spirituality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최은택(Euntaek Choi)**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의 방향성과 모형을 제시하고, 기독교교육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게 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해 어떠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범위,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과 유례없는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고, 코로나19는 지난 3여년의 시간동안 우리사회의 일상과 표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이로 인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생태환경 문제인데, 이를 위해 기독교 영성교육의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것은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오늘날 생태환경 문제의 원인을 세 가지 측면(세계적, 사회적, 개인적)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의 방향으로서 참여적 책임의 영성, 생태중심주의적 영성, 생태적 회심의 영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교육의 모형은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 방법과 내용, 교육 환경과 평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방법으로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을 활용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교육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교회와 가정,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기독교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기독교적 생태영성, 프로젝트기반학습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5149)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etchoi0330@gmail.com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봉착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선포되었고,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범위,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과 유례없는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Schwab et al, 2017, 17-19). 또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 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빠른 속도의 전이와 변이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되는 등 문제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최재천 외, 2020, 22). 물론, 현재는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해 '앤데믹'(Endemic) 또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등의 담론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3여년의 시간동안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변화와 더불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다보니 어제의 표준은 오늘의 고전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표준 곧 '뉴노멀'(New-nomal)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면, 앞으로 인류의 시간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 BC)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AC)로 나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을 정도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Friedman, 2020.03.17).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the Post COVID-19 Era) 담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해 어떠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기독교가 현대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게 된 사회적 정황 속에서 교회와 사회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일의 미래는 현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서는 안 되고 스스로 새로운 창조의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이선영, 김난예, 2022, 342).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와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코로나19는 언택트(un-contact), 곧 비대면 온라인 문화를 확산시켰다(김진숙, 2020, 24). 물론,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욱 앞당기고, 또 공장의 가동과 인간의 외부활동을 감소시키면서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기도 했다(김성중, 2020, 53; 황원희, 2020. 3. 30). 하지만 동시에 배달 문화 확산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용기 및 생활 쓰레기들, 그리고 마스크의 남용 등은 생태환경에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김남영, 2020. 9. 20).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생태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생태환경 문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남용과 고갈,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을 일으켜 왔는데, 이로 인한 생태환경의 파괴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각종 전염병 등을 일으켜 인간 삶의 질을 훼손하고 생명을 위협해 왔기 때문이다(옥필훈, 2015, 11). 현재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세계화는 세계적 차원의 가능성과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태적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금융 위기, 불평등, 차별 등)을 야기하고 있다(Beck, 2010, 37). 특별히 생태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지구 한쪽에서의 일이 실시간 다른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는 동료시민의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Rockström & Klum, 2017, 23, 59).

그렇다보니 환경 전문가들이나 단체들은 생태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세계적·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적절한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별히 2007년에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안에 지구평균온도가 섭씨 4.5도에서 6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전현식, 2010, 239). 이 보고서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의한 결과를 기초로 발표된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대륙은 사막화 되며,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세계 주요 도시들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전 인류, 특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 로잔국제협의회에서는 생태환경의 문제(생태위기)를 우리 세대에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규정하였다(이은성, 2018, 7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에서 생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이 개인과 교회, 나아가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미래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는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기독교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인철(2019)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수도권 지역의 유명 개신교 교회들의 설교 행태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당 가기', 곧 "삼박자 신앙"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다(기독교의 이해 편찬위원회, 57). 물론,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설교 행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5년 간 매주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경험적으로 얻은 결과로 보건대, 한국교회 설교 행태와 교육의 표집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찬석(2019, 593)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회의 근간이 '창조-〉타락-〉구원'의 공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 구조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삼박자 신앙과 유사성

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이 삼위일체론과 같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진리일 수 없고, 미래의 목회는 기독교 공식의 다양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환경운동이나 생명과 생태계 중심의 목회와 교회는 '태초의 창조(처음의 창조)->계속적인 창조(현재의 창조)->새로운 창조(마지막 창조)'와 같은 공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찬석, 594). 이러한 주장은 급변하는 사회의 현실 속, 특별히 생태환경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은 생태영성을 지향하는 기독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생태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은 미약한 상황이다. 신익상(2021)에 따르면, 2020년 한 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경제 침체 문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기후 위기는 가장 적게 선택했다고 한다(김학철 외, 125). 문제는 그들 중 대다수가 코로나19의 원인이 인간에 의한 생태 파괴이고, 전염병의 증가 원인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 곧 생태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2018년 8월, 김도일, 조은하, 유미호(2020)는 교회학교 환경 교육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담임목사 14명, 교육목사 28명, 교육전도사 112명, 교사 45명, 기타 23명), "생태환경 교육이 교회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매우 그렇다 62.3%, 그렇다 30.6%)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데 반해, "교회에서 지구 위기 시대를 사는 미래세대에게 생태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생태환경 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 교육에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그 차이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들이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지식 부족'(49%), '생태환경 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 부족'(45.9%)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김정준 외, 284).

이로 보건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기독교인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생태영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과 교회를 넘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생태영성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현재 개신교의 침체와 위기의 주요 원인은 영성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충범, 2008, 36). 그렇다보니 그동안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신학 전 분야에 걸쳐 생태영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김은주, 2020; 박미경, 2022; 이관표, 2019; 이은성, 2018; 조미영, 2021; 전현식, 2010; Rhoads, 2007).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은 물론, 현대인들이 물질문명의 반작용으로 영성

을 추구하게 된 상황과 더불어 그들의 요구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맺을 수 있기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준 외, 222-224).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오늘날 생태환경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교육으로서 생태영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모형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교육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교회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기독교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의 방향성과 모형을 제시하고, 기독교교육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게 하는 데 있다.

II. 생태환경 문제의 원인

그렇다면 오늘날 생태환경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 곧 세계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

먼저,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생태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체제로서, 20세기 후반, 미국으로부터 전세계로 확산되어 경제적으로 새로운 세계화의 담론을 구축하고 있는 체제이다(Quinn & Stovall, 2009, 529-530).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시장의 자유를 담보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의 증대와 자본의 축적을 가능케 하였지만, 반대로 축적된 자본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계급화, 차별화, 불평등 등)을 양산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Harvey, 154-165)에 따르면, 이것은 민영화, 상품화, 금융화 등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으로부터 기인하는데, 탈취의 대상은 주로 노동자들(비정규직, 외국인, 여성, 어린이 등)과 소외계층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박경미, 2009, 104; 장귀연, 2006, 69).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생태환경 또한 탈취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은성에 따르면, 증기기관과 기술의 혁신을 토대로 이루어 진 산업혁명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고, 2차 산업사회에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가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은성, 78).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된 것인데, 이를 통해 대량 생산과 소비의 사회가 되면서 자연과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재해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생태계 파괴라는 위기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생태환경이 탈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특성 때문인데,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모든 영역의 것들, 특별히 자연도 사유화시키고 상품화시키기 때문이다(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17, 264-265).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Gelézeau, 200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이후,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파트가 돈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였고,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논리로 인해 난개발과 더불어 투기 등의 현상이 과열되면서 생태환경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보건대 경제적 세계화,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부격차는 물론, 사회적 불의와 부패의 세계화를 넘어 자연 재난의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다(김균진, 2006, 74). 그런 의미에서 시장논리에 의한 생태환경의 탈취 및 파괴 현상은 앞으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인간중심주의

그런가 하면,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미국의 과학사가 린 화이트(White, 2017)는 생태파괴의 주범이 기독교로부터 파생된 '지독한 인간중심주의'라고 주장하였다(장윤재, 205). 먼저, 인간중심주의란, 인간과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가 그린 '비트루비우스적 인간'(Vitruvian Man)에 잘 묘사되어 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육체와 정신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만물의 척도이자 세상의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상적 인간상이 남성, 곧 '그'(he)와 유럽의 백인을 주요 모델로 특정하면서 유럽중심주의와 제국주의적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Braidotti, 2017, 26; Davies, 1997, 23; Derrida, 1982, 115). 이는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강조하며, '타자들'로 낙인된 사람들에게는 성·인종 차별적으로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인간 이하의 지위를 부여하고, 배제와 박탈의 역사를 양산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인간지배를 넘어 자연지배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인데, 인간의 지배속성이 지배적 이성, 과학, 기술, 정치, 경제 등의 제도를 만들어 냈고, 이는 생태계 파괴와 위기의 근원으로 파악되고 있다(전현식, 246).

그렇다면 지독한 인간중심주의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왜곡된 성서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기독교에 기반을 둔 근대 서구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기독교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들, 특별히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와 같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다른 생명들을 지배해도 좋다는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고 한다(이관표, 3-4).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끝내 소유물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버(Weber, 2010)에 따르면, 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태동에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개신교)가 있고, 현대 자본주의는 황금만능주의를 태동시켜 자본의 축적, 또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난개발과 도시화 사업 등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기독교의 이해 편찬위원회, 204).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대, 기독교는 생태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긍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생태적 무지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는 '생태적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 무지란, 기후의 변화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기후의 변화 규모와 위급성 및 그 결과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전현식, 236). 현대인들은 기후시스템의 이상과 개별적 징후의 위험을 깨닫고는 있어도, 그 징후들(태풍, 홍수, 가뭄, 기근, 질병, 전염병, 멸종, 빙하의 녹아내림 등)이 가리키는 지구적 위기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태적 무지로부터 기인한다. 또 생태적 무지는 기후변화의 증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만큼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전현식, 237).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통한 환경오염의 문제, 특별히 플라스틱을 통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이지 못하는 상태가 생태적 무지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생태맹"의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생태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은성, 75;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55).

오늘날 한국교회 생태적 무지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특별히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은성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세계적 차원의 생태환경의 위기, 창조세계의 파괴에 대해 아파하는 하나님의 신음에 둔감하여 생태환경의 위기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들게 한다(이은성, 84). 일단, 교회력상 환경에 관한 주일이 연간 1회 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생태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 기독교환경운동연대나 녹색교회 운동과 같이 환경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의 수가 한국교회의 전체 수에 비례해 볼 때 극소수에 불과하다보니 환경운동에 대한 실천 역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생태 설교-에세이 공모전과 같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김도일, 조은하,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태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Ⅲ.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의 방향성

그렇다면 앞으로 기독교교육 특별히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영성이란,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 계승된 신앙인의 자세, 정신 혹은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류삼준, 2016, 86). 또 기독교 영성은 “개인과 신앙공동체가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기독교적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 세상 또는 타 존재와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려는 실존적이면서도 통전적인 본성 혹은 그 구체적인 존재양식(삶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김도일, 2010, 6; 김수천, 2022, 87; 류삼준, 88; 조은하, 2003, 345; Downey, 1997, 44). 이를 기반으로 기독교적 생태영성은 개인과 신앙공동체가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특별히 생태환경과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려는 자세, 정신 혹은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생태영성의 삶을 위해서는 앞서 세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 문제의 원인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적 책임의 영성

‘세계적 차원’으로는 ‘참여적 책임의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생태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과 전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시장의 자유를 담보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남용,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

부의 개입 특별히 범정부적 차원의 개입과 더불어 전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오늘날의 생태환경문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국가에 있어서도 어느 한 특정 지역이나 기관,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애초에 자연환경에는 국경선이 없었다(김균진, 71).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 그리고 국가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대화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세계 경제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는 단연 에너지와 환경 문제이다.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세계 경제를 좌우할만한 적은 없었다. 특별한 것은 기후 협상 자체가 국제적 환경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시장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 대 국가 간에 시장 개념을 도입하여 배출권을 비용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도 나타난다. 교토 의정서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1997년 12월, 교토에서 맺은 의정서로, 공동 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 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배출권 거래제(Emisions Tradin)가 핵심 내용이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105). 이러한 협약으로 인해 세계적 측면에서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들이 환경친화적 부분에 투자하면 청정 개발체제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게 되면서 탄소의 배출은 비용이 되고, 탄소의 감출은 수익이 되었다. 국가 및 기업 간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친환경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규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미래기획위원회, 106-107).

그렇다보니 기업들은 “기후 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녹색성장’ 또는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미래기획위원회, 108).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정부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ESG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아마존(Amazon)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2050년까지 창립 이후에 배출한 탄소 모두를 상쇄시키겠다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선언하기도 했다(김광석, 2021, 223-226). 이러한 경영과 참여가 곧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곧 21세기 행동 지침에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적인 삶의 권리를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 곧 자연의 훼손 및 약탈적 활용을 지양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생태개발’(ecodevelop-

ment)이라는 개념이 태동되기도 했다(Chauveau, 2014, 1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국가들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아파트 공화국답게 지역 곳곳에서 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한국교회환경연구소, 255). 그렇다보니 한국은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이은성, 77). 한편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당연하다고 보고, 기존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했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생태적 문제로부터 자본주의가 해방되고, '녹생성장'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히켈(Hickel, 2021, 189-191)의 경우, 정반대로 행동하며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급진적이면서도 정책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재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친(Bookchin)은 "인간에게 호흡을 멈추라고 '설득할' 수 없는 것처럼 자본주의에게 성장을 제한하라고 '설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Hickel, 122).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시장 혹은 기업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곧 중국 북경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구촌 어느 한 국가의 작은 움직임이 전지구적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 속한 국가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2050년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어쩌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떠나 난민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다(월드워치연구소, 2013, 472). 이는 환경 위기로 발생한 난민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Giddens, 2009, 19)는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또 "책임 국가"(ensuring state)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한편에서는 인간을 지구의 기본 값으로 설정해 놓고서 세워지는 정책 혹은 자연을 자원과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담론들(친자본주의적, 친시장경제적, 친개발적 등)은 이미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한국교회환경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020, 1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완전한 생태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정 및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교육은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학습자들이 그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정당에 가입한다거나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이미 이러한 참여적 책임의 영성은 성서의 예언자들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구약성서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등의 예언자들은 사회변혁은 물론,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폭로하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김정준 외, 235). 이로 보건대 그들의 영성은 사회 도피적이 아니라 사회 참여적이었고, 사회 불의에 저항하며 긍정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책임적 영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Calvin)과 존 웨슬리(Wesley)의 경우, 교회가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는 사회, 정치, 경제적 삶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사회 불평등이나 노동 착취나 노예제도 등이 만연한 사회를 변혁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적 책임의 영성을 보여주었다(김정준 외, 236-237). 오늘날 이러한 영성은 세계화된 상황 속에서 국수주의적인 고립을 넘어 글로벌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 시민 간 연결을 통해 교회와 사회는 물론, 지구촌의 생태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김성중, 52). 또 이것은 교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적자생존, 무한경쟁, 승자독식 등의 부정적인 구조를 지탱해 온 이기적, 기복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협동하도록 돕는 '공생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오충현 외, 124).

2. 생태중심주의적 영성

'사회적 차원'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생태중심주의적 영성'을 지향하는 기독교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주의는 그동안 자아와 세계 간 상호의존을 무시하고, 과학만능주의와 기술 중심주의를 통해 자기이익을 지나치게 극대화시키게 하였다. 그렇다보니 형제자매로서의 만물 인식은 물론, 공동기원 및 공동운명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을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김균진, 151). 이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이자 은혜로서 주어진 생태환경 곧 자연의 비극이 인간의 비극이 됨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생태환경문제로 다가오고 있다(전현식, 242).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생태환경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식의 변화 또는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Rockström & Klum, 27). 그것은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이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와는 달리, 개체적 독립과 자율적 자유주의의 가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과 자연의 절대적인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의 기저에는 바뤼흐 스피노자(Spinoza)의 철학이 있다. 기존 인간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철학은 르네 데카르트(Descartes)의 사상 곧 '코기토 주체'(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다. 그에 따라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정신-신체를 구분하고, 주체- 객체(타자)를 분리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간중심주의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러한 구분을 거부하고 '일원론적 우주'(monistic universe)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물질, 세계, 인간이 이원론적 대립 원리에 따라 구성된 존재들이 아니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기론적 유물론'(vitalist materialism)이 형성되었고, 이는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감수성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Braidotti, 76-77). 이를 통해 인간-인간, 인간-자연, 인간-동물, 인간-기계 등의 상호작용이 강조되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스피노자는 기독교의 신 개념을 거부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이러한 이해는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 생태여성주의 신학자 샐리 맥페이그(Mcfague, 1993, 27)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중 하나인 '성육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세계'를 주장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은 이분법적 관계를 넘어 긴밀한 관련성과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은 원어로 '코스모스'(cosmos), 곧 우주만물이다. 이로 보건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곧 우주만물로 확장하여 만물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인간만의 구원이 아닌 만물의 총체적인 갱신과 구원, 조화를 이루는 전통이 존재해 왔다(장윤재, 24-25). 성 프란치스코(St. Francis)는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살면서 자연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동물들에게 설교하고 계약을 맺고, 만물을 형제·자매로 부르는 '만물 평등주의'를 실천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Luther)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창조'이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창조하시기에 자연은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자연을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신의 작품'으로 보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지 않고,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에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생태중심주의의 전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서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존에 한국사회에서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한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28절을 제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개역개정판).”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인간이 마구잡이로 땅을 파헤치고 개발하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어 곧 ‘Kaw-bash’는 영어로 ‘Subdue’(NRSV)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복한다”와 동시에 “잡초 따위의 뿌리를 뽑고 땅을 개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정복한다’라는 것은 성서 전체적인 의미와 히브리어 동어반복 어법을 고려할 때, ‘짓밟는다’ 보다는 ‘다스린다’의 의미가 강한데, 이것은 인간이 땅을 잘 다스려서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인간에게 주어진 지배권은 상호공존을 위한 청지기적 관리의 책임이 부여된 것을 의미하지, 포악한 지배자처럼 마음대로 하는 권력이 부여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기독교의 이해 편찬위원회, 217). 이처럼 성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성서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성서에는 생태환경문제를 긍정적으로 다루기 위한 본문들(창 9:1-17; 시 104; 롬 8:18-25; 골 1:15-20 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생태중심주의적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독교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Horrell, 2014, 32).

3. 생태적 회심의 영성

‘개인적 차원’으로는 ‘생태적 회심의 영성’을 촉구하는 기독교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생태적 회심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곧 생태계, 자연, 환경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장윤재, 19). 그것은 그동안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무대장치 정도로 여겨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작품으로서 세계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마가렛 불릿-조나스(Jonas, 2015)에 따르면, 생태적 회심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1단계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됨으로서 시작되는 것이고, 2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창조세계의 상처를 슬퍼하고 우리의 실존적 비통함과 죄를 알게 되는 것이며, 3단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Rhoads ed., 141-142). 이것은 단순히 내면적 변화를 넘어 실천적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회심이자, 개인적 구원을 위한 회심을 넘어 사회적 구원을 위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는 학습자들의 생태적 지식을 높이는 일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을 생태 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 경제학자가 될 필요가 없듯,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나 정신분석가가 될 필요가 없듯, 생태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생태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생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식을 갖추면 되는 것이다(전현식, 237).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은 학습자들이 생태적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먼저, '에코지능'(ecological intelligence)을 높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에코 지능이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영향을 이해하는 인식 능력, 즉 자신의 소비와 생산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 전반을 파악할 줄 아는, 예민하고 현명한 통찰력"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Goleman, 2010, 6). 대니얼 골먼(Goleman, 327-328)은 앞으로 에코지능에 따른 소비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자본주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생태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로 이것은 '생태 리터러시'(Ecological literacy)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 리터러시란, "생태적 공동체(생태계)의 조직 원리를 이해하고, 유지 가능한 인간 공동체들(교육 공동체, 기업 공동체, 정치 공동체 등)을 소생시켜서 생태학의 원리가 교육, 경영, 정치의 기본원리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Cafra, 1996, 247). 다른 말로는 "지구상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연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조미영, 2020, 325). 데이비드 오어(Orr, 1992, 136)는 이것이 "생태적 야만인" 곧 생태적 문맹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생태 리터러시를 함양한 개인 또는 사회는 생태계 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태학적 원리가 발현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태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성서의 예수는 생태적 지능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꽃(마 6:28, 10:29; 눅 12:6, 12:27)의 생명을 소중히 헤아리며, 긍휼과 자비로 돌보시는 분이라고 가르쳤고, 또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수확을 하는 모습(막 4:26-29)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과 열매의 관계를 설명(요 12:24)하는 등 당시로서는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 등에 대해 가르쳤다(한국교회환경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15-16). 이로 보건대 예수는 생태운동가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피조물에 대한 깊

은 묵상과 통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씨 뿌리는 비유(마 13:3-9)에서 어떤 씨는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른 씨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그 원인을 꿰뚫어 보았다(김수천, 106).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보다 쉽게 전할 수 있었고, 예수가 전한 복음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들에 피는 백합화(마 6:28-29)를 솔로몬의 옷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에 관심 및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반대의 삶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김수천, 107). 이로 보건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활용했던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생태적 회심이 필요하다. 그리할 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며, 초월적인 영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기독교인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문제 가운데 참여적 책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생태중심주의적 영성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생태적 회심의 영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생태영성을 토대로 오늘날 생태환경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독교인을 양육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는 물론, 사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의 모형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그것은 각각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 방법과 내용, 교육 환경과 평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모형을 수립한 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1.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생태영성을 함양하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 특별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 영성으로서 각각 참여적 책임의 영성, 생태중심주의적 영성, 생태적 회심의 영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영성의 함양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탈취 및 파괴 현상을 막고, 인간중심주의의 부정적 면모를 탈피하며, 생태맹의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자연과 인간의 긍정적 관계를 맺고, 생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별히 기독교는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시장 논리를 거부하고, 왜곡된 성서해석의 문제를 교정하며, 종교적 회심을 넘어 생태적 회심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의 설정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생태영성에 기반을 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생태환경 문제에 있어 교회와 가정, 사회에 대한 긍정적 역할과 책임은 물론, 기독교적 생태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특별히 시장의 논리로 인한 생태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위한 사회적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책임적 참여의 영성의 삶이기 때문이다. 생태학자인 토마스 베리(Berry, 2011)는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그리스도인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현재 자신의 주변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생태환경문제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 원인의 실마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행동 및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성서를 재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 성경(The Green Bible)이나 지구 성경 프로젝트(The Earth Bible Project)를 활용할 수 있다(한국교회환경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1-26). 녹색 성경이란, 예수의 말씀에 붉은색(red)으로 표기한 것처럼, 생태적 구절에 녹색(green)을 표시한 것으로, 약 1,000개 이상의 구절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지구 성경 프로젝트는 인간중심적 태도로 성서를 읽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곧 자연과 인간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성서 읽기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하며 적용하다보면, 기독교적 생태영성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는 생태 리터러시의 함양을 토대로 생태적 회개를 돕는 것이다. 기존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개인적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각 교단이나 교회는 각자의 교세 성장을 위하여 시장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흐름에 일조함으로써 생태환경의 위기를 방관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흐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이현숙,

2021, 182).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생태 리터러시를 통해 생태적 지능을 함양하고, 그동안 자신과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생태적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 방법과 내용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는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곧 PBL이 있다(양성진, 2018, 582). PBL은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생태영성의 삶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별히 PBL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존 라머와 연구진(Larmer, Mergendoller & Boss, 2015)이 함께 제시한 방식으로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과업 곧 프로젝트 설계와 진행으로 나뉠 수 있다. 우선, 프로젝트 설계는 크게 세 가지 과업이 진행되는데, 그것은 각각 ① 상황 고려하기(대상, 시간/기간, 학습영역, 장소) ② 아이디어 구상하기(학습주제) ③ 기본 틀 잡기(학습목표, 탐구질문, 학습결과물, 결과물 전시)이다(Larmer, Mergendoller & Boss, 75-96). 이를 표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은데, 청소년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내용을 제시해 볼 수 있다(최은택, 2020, 191-193).

〈표 1〉 프로젝트기반학습(PBL)의 설계와 과정

<table>
<tr><td colspan="6">프로젝트 설계</td></tr>
<tr><td rowspan="2">1단계</td><td rowspan="2">상황
고려하기</td><td>대상</td><td>청소년</td><td>시간/기간</td><td>30분~/4주~</td></tr>
<tr><td>학습영역</td><td>사회, 경제, 정치</td><td>장소</td><td>각 반</td></tr>
<tr><td>2단계</td><td>아이디어
구상하기</td><td>학습주제</td><td colspan="3">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확산과 생태환경문제</td></tr>
<tr><td rowspan="3">3단계</td><td rowspan="3">기본 틀
잡기</td><td>학습목표</td><td colspan="3">1.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실천
2. 생태주의적 성서해석과 적용
3. 생태적 회개 기도문 작성</td></tr>
<tr><td>탐구질문</td><td colspan="3">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된 생활쓰레기,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td></tr>
<tr><td>학습결과물</td><td>동영상,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td><td>결과물 전시</td><td>유튜브, SNS
업로드</td></tr>
</table>

프로젝트 설계 이후, 진행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각각 ① 프로젝트 시작하기(1단계) ② 지식, 이해, 역량 개발하기(2단계) ③ 결과물 발전, 비평, 개선하기(3단계) ④ 결과물 발표하기(4단계)이다(Larmer, Mergendoller & Boss, 105). 먼저, 1단계(1주차)의 프로젝트 시작하기는 [도입활동 진행하기-탐구질문 소개하기-주요결과물 결정하기-모둠 구성하기-모둠활동의 시작을 돕기]의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 [도입활동 진행하기]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주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확산과 생태환경문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 이때, 이와 관련한 뉴스 기사나 영상 등을 보여줄 수 있고,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탐구질문 소개하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된 생활 쓰레기,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소개한 뒤,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싶은 것, 그리고 배우게 된 것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결과물 결정하기]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나누게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의 방향성과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한 뒤 그대로 진행하게 격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교사가 미리 설계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모둠 구성하기-모둠활동의 시작을 돕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모여서 모둠을 만들고, 각자 자신들만의 개성 있는 모둠명, 구호 등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다음 단계의 학습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2단계(2주차)의 지식, 이해, 역량 개발하기는 학습자들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며,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먼저,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또 생태주의적 성서해석의 방법과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녹색 성경의 본문들, 곧 지구 지킴의 원리(창 2:15), 결실의 원리(창 1:20, 22, 24; 시 104:10-13), 안식일 원리(출 23:10-11; 레 26:3-4, 14-15, 33-35; 사 58:13-14), 제자도 원리(골 1:16, 20; 요 1:3; 히 1:3), 하나님 나라 우선 원리(마 6:33, 6:9-13), 자족의 원리(시 119:36; 딤전 6:6, 11; 히 13:5), 실천의 원리(야 2:19; 겔 33:31-32; 눅 6:46), 보존의 원리(창 2:15; 고전 15:22, 45) 등을 참고하여 제시할 수 있다(한국교회환경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2-23). 이를 토대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서해석의 본문을 선정하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편, 학습자들이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제작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등을 연결하여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3단계(3주차)의 결과물 발전, 비평, 개선하기는 학습자들이 그동안 배운 것과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탐구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들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답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이나 방향 등을 제시하며 도울 수 있고, 학습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과물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평 및 개선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비 편집이 완료된 결과물을 가지고 교사와 동료, 그리고 전문가 혹은 결과물을 보게 될 사람들에게 미리 중간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 만약 추가적인 학습이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면, 학습자들은 이전 단계로 돌아갔다 오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4단계(4주차)의 결과물 발표하기는 학습자들이 그동안 준비하여 완성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과정으로, 미리 선정해 놓은 장소(유튜브, SNS)에 전시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또는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 역할 분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프로젝트 이후,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적 생태영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실천 방안, 생태중심적 성서해석과 묵상, 생태 회개 기도문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고, 학습자들이 앞으로 보다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격려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다.

3. 교육 환경과 평가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은 먼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유튜브(Youtube), 구글 독스(Google Docs), 줌(Zoom), SNS(Social Network Service), 게더타운(Gether Town), 제페토(Zepeto)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인터넷 환경 등을 조성해 놓을 필요도 있다. 이러한 환경은 오늘날 메타버스(Metaverse)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참여와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장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습자는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배우며, 생태영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숙은 후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기독교적 정체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성, 평등성,

개방성에 기초한 탈인습적 대화의 교육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교사와 학습자 간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장을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김현숙, 2010, 240-242). 마지막으로는 교회-가정-사회의 연계가 가능한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교회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생태교육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진행하는 '생명밥상운동'이나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생태환경운동 캠페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박미경, 274).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의 조성은 학습자들이 기독교 생태영성, 특별히 참여적 책임의 영성, 생태중심주의적 영성, 생태적 회심의 영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교육의 환경, 특별히 교육 공간은 교육 행위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시설이나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성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교육미디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박지원, 김회용, 2016, 120).

그런가 하면, 교육 평가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교육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의 결과는 물론, 강점과 약점을 규명하고, 앞으로 어떠한 교육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고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확한 목적과 목표의 설정은 물론, 프로젝트의 설계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기독교적 생태영성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는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성서를 바라볼 수 있는지, 생태적 지능을 확보하며 생태적 회심의 영성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등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고, 모든 평가는 결과·비교로서의 평가가 아닌 과정·성장으로서의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이은실, 2017, 49-64). 이러한 평가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기독교적 생태영성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일지나 자기 평가, 성찰 일기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Ⅴ.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교육, 특별히 기독교적 영성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

업혁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생태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생태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기독교적 생태영성은 기존 기독교 영성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의 생태 개념을 추가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곧 참여적 책임의 영성, 생태중심주의적 영성, 생태적 회심의 영성이라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의 구체적인 모형을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환경과 평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립하여 제시했다. 이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생태영성에 기반을 둔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생태환경 문제에 있어 교회와 가정, 사회에 대한 긍정적 역할과 책임은 물론, 기독교적 생태영성의 삶을 지향하는 하나의 대안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짧은 소고의 특성상, 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생태영성교육에 관한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별히 필자가 제안한 기독교적 생태영성교육은 보다 더 다양한 대상, 곧 성별, 연령,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학습시간이나 기간 등을 고려해 상황과 조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학교 분반공부 시간, 속회 공과 시간, 절기 프로그램, 여름성경학교와 같은 계절 프로그램, 사경회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는 것이다(강인애, 남선우, 2008). 또 교회는 물론, 교회 밖의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교육으로 설계될 수 있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은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비정규 수업 활용에 있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Larmer, Mergendoller & Boss, 159-162).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양한 교육방법, 곧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나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모형이 구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와 실천은 생태환경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생태영성을 함양한 기독교인을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와 가정,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강인애·남선우 (2008). 대안적 기독교 교육방법으로서의 PBL. **기독교교육정보. 21**, 403-439.

[Kang, I. A., & Nam, S. W. (2008). PBL as An Alternative Christian Education Model.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1*, 403-439.]

기독교의 이해 편찬위원회 (2019). **기독교, 묻고 답하다**. 서울: 청송미디어.

[Kim, S. J. et al. (2019). *Christianity, question & response*. Seoul: Chung-song Media.]

김광석 (2021).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서울: 지식노마드.

[Kim, K. S. (2021) *With Corona and 2022 Economic Outlook*. Seoul: Knomad.]

김균진 (2006).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Kim, K. J. (2006). *Christian theology's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environment*.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김남영 (2020. 9. 20). 택배·음식 배달 쇄도 … '쓰레기 대란' 덮쳤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209818 1, 추출일 : 2022. 10. 20.

[Kim, N. Y. (2020. 9. 20). Home delivery and food delivery rush. Hankyung.]

김도일 (2010).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2**, 1-21.

[Kim, D. I. (2010). Christian Spirituality Education for the Renewal of Human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2*, 1-21.]

김도일·조은하 (2019). 지구위기 시대의 교회 환경교육. **기독교교육정보. 62**, 157-186.

[Kim, D. I., & Cho, E. H. (2019). Church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 Crisi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2*, 157-186.]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김수천 (2022). **성서에 펼쳐진 영성의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Kim, S. C. (2022). *The spiritual world unfolded in the Bible*.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김은주 (2020).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63**, 347-376.

[Kim, E. J. (2020). Direction and Practical Proposal for Christian Education through Ecological Christian Spiritu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47-376.]

김정준 외 (2020).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기독교교육.** 서울: 동연.

[Kim, J. J. (2020). *Christian education beyond COVID-19*. Seoul: Dong-yeon.]

김진숙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해진 역량, '디지털 시민성'. **월간 공동정책. 176**, 22-25.

[Kim, J. S. (2020). Competencies that have become important in the post-COVID-19 era, 'digital citizenship'. *Monthly Joint Policy, 176*, 22-25.]

김학철 외 (2021). **21세기 이후의 기독교교양**.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Kim, H. C. et al. (2021). *Christian education after the 21st century*. Seoul: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김현숙 (2012).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Kim, H. S. (2012). *Postconventionality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류삼준 (2016). 기독교 영성교육에 있어서 교수-학습과정의 원리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50**, 81-117.

[Ryu, S. J. A (2016). Study on the Principles of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in Christian Spirituality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0*, 81-117.]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의 길**. 서울: 중앙북스.

[Future Planning Committee. *The path of green growth*. Seoul: JBooks.]

박경미 (2009).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독교사상. 53/1**, 104-117.

[Park, K. M. (2009). What do people live by. *Christian Thought, 53/1*, 104-117.]

박미경 (2022). 생태위기의 시대, 기독교생태교육 정책의 방향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72**, 251-282.

[Park, M. K. (2022).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in the Era of Ecological Crisi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72*, 251-282.]

박지원·김회용 (2016). 생태리터러시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교육종합연구. 14/2**, 105-125.

[Park, J. W., & Kim, H. Y. (2016). The Concept of Ecological Literacy and its Educational Meaning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2*, 105-125.]

오충현 외 (2020).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시대, 생물다양성에 주목하다**. 논산: 대장간.

[Oh, C. H. et al. (2020). *Corona Pandemic and Climate Crisis Era, Paying Attention to Biodiversity*. Nonsan: daejanggan.]

옥필훈 (2015).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독교 환경운동과 선교신학적 발전과제. **종교문화학보. 12**, 5-44.

[Ok. P. H. (2015).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Missiological Task for the Ecological Crisis. *The Korean Association of Religious Studies and Culture*, 12, 5-44.]

양성진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59**, 567-597.

[Yang, S. J. (2018). Implications in Regard to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ology and Praxis, 59*, 567-597.]

월드워치연구소 (2013). **지속가능성의 도전**. 오수길·함규진·이창언·곽병훈 역. 서울: 도요새.

[World Watch Institute. (2013). *Sustainability Challenge*. Seoul: Doyosae.]

이관표 (2019). 생태여성주의신학과 환경위기의 문제. **동서정신과학. 22**, 1-18.

[Lee, K. P. (2019). Eco-feminism Theology and the Problem of ecological Crisi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22*, 1-18.]

이선영·김난예 (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 메타버스 기독교교육 플랫폼. **기독교교육논총. 71**, 341-370.

[Lee, S. Y., & Kim, N. Y. (2022). The metaverse christian educational platform in post-Corona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1*, 341-370.]

이은성 (2018). 생태환경문제와 교회학교 어린이 신앙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56**, 73-100.

[Lee, E. S. (2018). Ecological Environment Problems and Considerations for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73-100.]

이은실 (2017). 기독교 교육실천을 위한 성경적 평가의 의미와 원리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2**, 39-69.

[Lee, E. S. (2017). The Meaning and Principles of Biblical Evalu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Practic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2*, 39-69.]

이찬석 (2019). 미래목회를 위한 기독교의 새로운 공식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6**, 589-614.

[Lee, C. S. (2019). A Study on the New Formula of Christianity for Future Ministry. *Theology and Praxis, 66*, 589-614.]

이충범 (2008). 개신교 영성의 현주소와 여성생태주의 영성. **가톨릭철학. 10**, 35-64.

[Lee, C. B. (2008). The Current Trends of Protestant Spirituality and Christian Ecofeminist Spirituality. *The Catholic Philosophy, 10*, 35-64.]

이현숙 (2021). 코로나는 아픈 지구의 외침이다. **가톨릭 평론. 33**, 174-183.

[Lee, H. S. (2021). Corona is the cry of the sick earth. *Catholic Review, 33*, 174-183.]

장귀연 (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 책세상.

[Jang, G. Y. (2006). *Workers who have lost their rights Temporary workers*. Seoul: Chaeksesang.]

장윤재 (2017). **포스트휴먼 신학**. 서울: 신앙과 지성사.

[Jang, Y. J. (2017). *Posthuman Theology*. Seoul: Faith and Wisdom Press.]

전현식 (2010). 기후변화와 현대생태담론의 흐름. **기독교사상. 616**, 236-255.

[Jun, H. S. (2010). Climate change and the flow of modern ecological discourse. *Christian Thought, 616*, 104-117.]

조미영 (2021).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67**, 415-447.

[Cho, M. Y. (2021).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415-447.]

조미영 (2020). 세계화 시대의 생태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기독교교육. **신학논단. 101**, 309-339.

[Cho, M. Y. (2020). Christian Education to Cultivate Ecological Litera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ological Forum, 101*, 309-339.]

조은하 (2003).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영성교육. **기독교교육정보. 7**, 341-361.

[Cho, E. H. (2003). A Study on Contemporary Spirituality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72*, 251-282.]

최은택 (2020). 호모 콩코르스를 지향하는 융복합적 성서교육모형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5**, 171-204.

[Choi, E. T. (2020). A Study on the Model of Convergence Biblical Education for Homo Concor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5*, 171-204.]

최재천 외 (2020).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Choi, J. C. et al. (2020). *Corona Sapiens*. Seoul: Influential.]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17). **포스트휴먼 시대, 생명·신학·교회를 돌아보다**. 서울: 동연.

[Korea Church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2017). *Looking Back on Life, Theology, and the Church in the Post-Human Era*. Seoul: Dong-yeon.]

한국교회환경연구소·기독교환경운동연대 (2020). **삶으로 일구는 생태영성**. 서울: 동연.

[Korea Church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 Solidarity for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2020). *Ecological spirituality cultivated by life*. Seoul: Dong-yeon.]

황원희 (2020. 3. 30). 코로나19, 경제활동에는 악영향... 하지만 지구환경에는?. 이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061761779, 추출일 : 2022. 10. 18.

[Hwang, W. H. (2020. 3. 30). COVID-19, Adverse effects on economic activities. Emedia.]

Beck, U. (2010). 글로벌 위험사회. 박미애·이진우 역. 서울: 길, 2010. (원저 2008 출판)

[Beck, U. (2010). Weltrisikogesellschaft. Translator : Park, M. A., & Lee, J. W. Station. Seoul: Gil.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8)]

Berry, T. (2011). 그리스도교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 황종렬 역. 서울: 바오로딸. (원저 2009 출판)

[Berry, T. (2011). The Christian future and the fate of earth. Translator : Hwang, J. R. Station. Seoul: Pauline Books & Medi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9)]

Braidotti, Rosi. (2017).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파주: 아카넷. (원저 2013 출판)

[Braidotti, Rosi. (2017). The posthuman. Translator : Lee, K. R. Station. Paju: Acanet.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3)]

Cafra, F. (1996). *The web of life*. New York: Anchor Books.

Chauveau, L. (2014). 지속가능한 발전. 윤인숙 역. 서울: 현실문화. (원저 2006 출판)

[Chauveau, L. (2014). Le développement durable. Translator : Yoon, I. S. Station. Seoul: Hyunsilbook.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6)]

Davies, T. (1997). *Humanism*. London: Routledge.

Derrida, J. (1982). *Margins of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owney, M. (2001).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안성근 역. 서울: 은성. (원저 1997 출판)

[Downey, M. (2001).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Translator : An, S. G. Station. Seoul: Eunsung.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7)]

Friedman. Thomas L. (2020.3.17). Our New Historical Divid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17/opinion/coronavirus-trends.html에서 2022.10.20. 인출.

Gelézeau, V. (2007). 아파트 공화국. 길혜연 역. 서울: 후마니타스.

[Gelézeau, V. (2007). Apartment republic. Translator : Gil, H. Y. Seoul: Humanitas.]

Giddens, A. (2009). 기후변화의 정치학. 홍욱희 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저 2009 출판)

[Giddens, A. (2009).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Translator : Hong, W. H. Station. Seoul: Ecolivre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9)]

Goleman, D. (2010). 에코지능. 이수경 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원저 2009 출판)

[Goleman, D. (2010). Ecological intelligence. Translator : Lee, S. J. Station. Seoul: Woongjin.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9)]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ickel, J. (2021). 적을수록 풍요롭다. 김현우·민정희 역. 서울: 창비. (원저 2020 출판)

[Hickel, J. (2021). Less is more. Translator : Kim, H. W., & Min, J. H. Station. Seoul: Changbi.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20)]

Horrell, D. G. (2014). 성서와 환경. 이영미 역.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원저 2010 출판)

[Horrell, D. G. (2014). The Bible and the environment. Translator : Lee, Y. M. Station. Seoul: Hansin University Pres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0)]

Larmer, J., Mergendoller, J., & Boss, S. (2015). *Setting the standard for project based learning*. Alexandria, VA: ASCD.

Mcfague, S. (1993). *The Body of God: An Ecolog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Orr, D. (1992). *Ecological literac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Quinn, T., & Stovall, D. (2009). *Handbook of social justice in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Rhoads, D. eds. (2007). *Earth and Word*.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Rockström, J., & Klum, M. (2017).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김홍옥 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저 2015 출판)

[Rockström, J., & Klum, M. (2017). Big world, small planet. Translator : Kim, H. O. Station. Seoul: Ecolivre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8)]

Schwab, K. et al. (2017). 4차 산업혁명의 충격. 김진희·손용수·최시영 역. 서울: 흐름출판. (원저 2016 출판)

[Schwab, K. et al.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ranslator : Kim, J. H., Son, Y. S., & Choi, S. Y. Station. Seoul: Next wave medi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6)]

Weber, M. (2010).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최기철 역. 파주: 다락원. (원저 1958 출판)

[Weber, M. (2010).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Translator : Choi, K. C. Station. Paju: Dara kwon.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58)]